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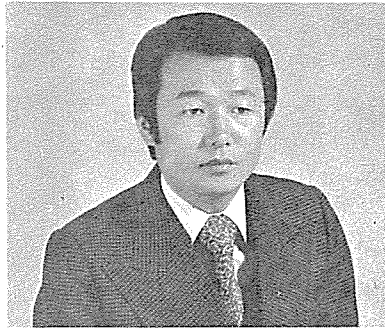
# 特 輯

## 會員作品展示

展示場所: 全北 金田 대륙 빌딩  
 展示日時: 80. 11. 21~12. 20

出品會員

俞鐵鉀 (左) 朴東潤 (右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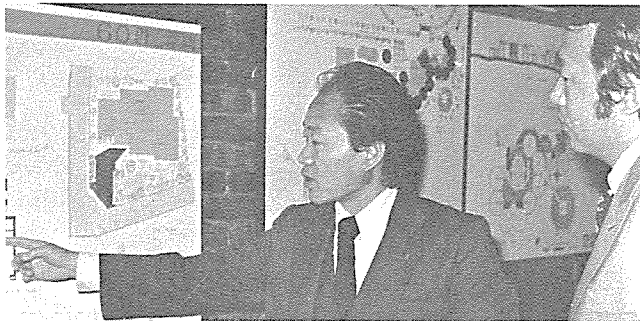


작품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는 노고송동 대륙빌딩에 도착하여 본 협회 전북지부 사무국장과 최 과장의 안내로 전시회장을 찾았다.

무뚝뚝하면서도 친절히 맞아주는 유철갑 회원을 대하니 서울서부터 4시간 남짓 차로 달려온 지루함과 피곤함이 어느덧 사라지는 듯했다.

전시장 입구에는 본회 회장님과 각 기관에서 보내온 축하 화분이 어우러져 그윽한 향기를 발하며 관람인들을 더욱 반겨준다.

관람인들과의 일문일답에 분주한 유철갑회원을 쫓아겨우 자리를 마련했다.



윤봉원: 작품 전시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.

전시장에 있는 작품수는 얼마나 됩니까?

유철갑: 어린이 회관 및 단독주택등 23개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.

: 이 정도의 전시를 준비하려면 경비가 얼마나 소요되며 기간은 어느정도이며 약 3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.

윤봉원: 이 정도의 전시를 준비하려면 경비가 얼마나 소요되며 기간은 어느정도 걸립니까?

유철갑: 준비기간은 약 1년정도이며 약 3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.

윤봉원: 지금 하루 평균 관람인원이 몇명정도입니까?

: 약 150명 정도입니다.

윤봉원: 준비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?

유철갑: 실무에 종사하면서 전시준비를 한다는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재삼 느꼈습니다.

그 고충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군요(일동웃음) 중도에서 포기하려고 몇번씩이나 생각도 했으나 막

상 개최해놓고 보니 준비하는 동안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.

윤봉원: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전시회를 꼭 개최해야 했을 동기가 있으시다면?

유철갑: 건축사가 자기의 작품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

건축 설계를 의뢰하고 있는 시민에게도 참조가 될뿐 아니라 설계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도 되니까요.

약 3년전부터 전시회를 꼭 한번 하고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서야 약소하나마 뜻을 이룬 것 같습니다.

주위 선후배의 권고도 많았고 또 지금도 자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. 특히 학생들이 관람하면서 의문점을 문의할 때에 그 보람을 찾곤합니다.

자신이 끈기있게 참고 견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자찬인것 같아서 죄송합니다. (일동웃음)

윤봉원: 아니지요.

준비를 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겁니다. 차후 작품전시회를 개최할 뜻을 가진 회원에게 권유할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.

유철갑: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.

저보다도 더잘들 아시겠지요. 다만 부탁드린다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 효과적인 전시는 개인전보다 그룹을 짜서 시행하면 좋을것 같습니다.

윤봉원: 그렇죠.

그룹을 짜서 실시하면 많은 절약이 되겠습니다.

유철갑: 이번 전시회 개최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본회 구윤희 회장님을 비롯하여 전북지부 지부장님,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.

오늘 윤의원님께서도 이 먼길을 오셔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.

윤봉원: 원 별말씀을 다하십니다.

보람이 있었습니다.

유철갑: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전주시민에게 설계의 중요성이 얼마나 인식되었는지는 미지수이지만 앞으로 이런 전시회가 자주 개최 되었으면 합니다.

윤봉원: 장시간동안 감사합니다.

차체에 협회에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

시요

유철감 : 건의사항은 별로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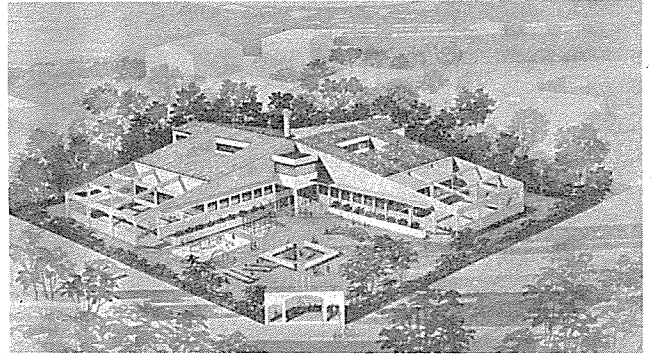
잘하고 계시는데요.

전시회를 관련하여 한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협회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각시도 단위별로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향을 모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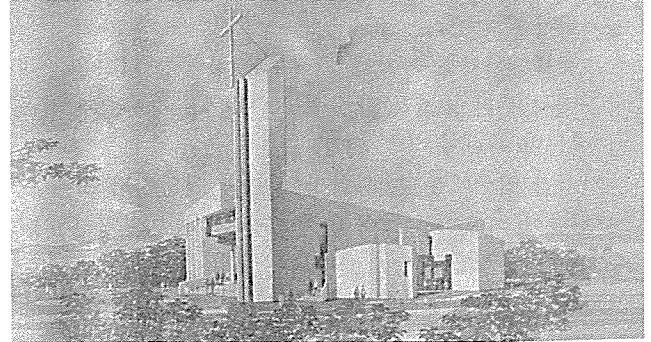
윤봉원 : 그런 방향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
그동안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유철감 : 감사합니다.

유치원



교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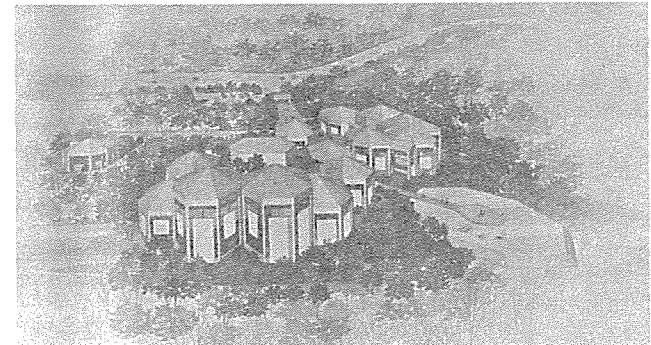
점포·사무실



목욕탕·여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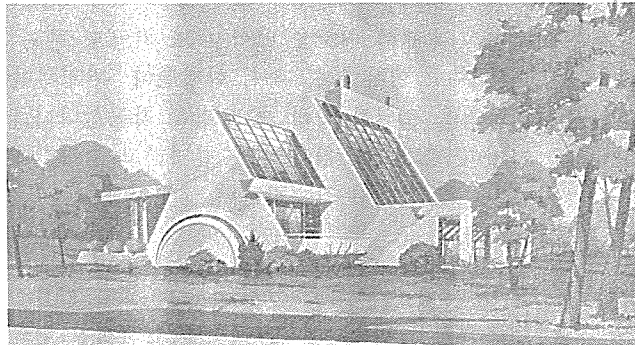
어린이회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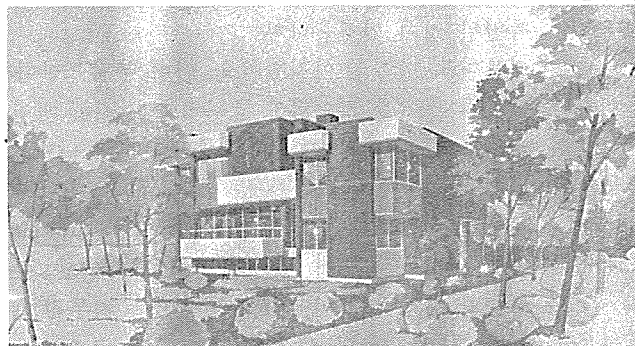
경사지 주택



태양열 주택



48평주택



63평주택

